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4. Vol. 16, No. 4, 667-685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이 경 진†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다고 시사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다고 시사된 15개의 심리적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우울, 무망감, 삶의 의미, 역기능적 충동성, 수동적 삶의 자세, 간이정신진단,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아탄력성, 문제해결기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정의 화목도, 학교생활만족도,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 척도 등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청소년 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살생각 점수를 상, 중, 하집단으로 나누어 심리적 변인 15개의 점수를 기초로 일원변량분석과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변인 15개의 집단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심리적 변인 15개의 총점들 각각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살생각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을 하는 심리적 변인들은 자기수용, 수동적 삶의 자세, 정신건강상태, 자아탄력성, 문제해결기술, 가정의 화목도, 무망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 심리적 특성, 심리적 변인들

† 교신저자 : 이 경 진,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943-9737 E-mail : jiny1021@hanmail.net

최근 우리나라는 전 연령층을 통해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경우, 자살이 사망순위 2위로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청소년백서, 2003). 청소년 자살은 자기 삶을 끝장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감춰진 호소, 즉 도움을 청하는 울음일 수 있고(Schneidman, Farberow, & Litman, 1976), 도움 요청의 극단적 표현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임수영, 1996). 최후 순간 직전에라도 구원의 손길이 제공된다면, 그 갈등의 균형은 삶의 추동 쪽으로 되돌려질 것이다(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그러나 자살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자살자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윤리적, 실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임수영, 1996). 그러므로 자살에 있어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몇 개의 원인들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복잡하고도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통해 훨씬 더 현실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즉, 최소한 자살 연구에 있어서는 한, 두개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잘 통제된, 그러나 '폐쇄적' 인 연구보다는 개방적이고도 포괄적인 연구가 실용적 가치가 더 높다는 시각 하에 본 연구가 기획되고 수행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다고 시사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연구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다고 밝혀진 15가지 심리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자아취약성, 사회적 지지, 생활스트레스, 심리적 부적응, 인지적 몰락, 문제해결방식 등으로 묶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아취약성

자아취약성에서는 자살과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의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면(Young, Rathge, Mullis, & Mullis, 1990),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거나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위기에 취약하다(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 1997).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자살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고(O'Malley & Bachman, 1983; Pfeffer, Conte, & Plutchik, 1979; Rosenkrantz, 1978), Peter, Paul 및 John(1994)는 미래에 자살 시도의 강한 예측인자가 낮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했다.

두 번째, 지난 수십 년간 보도된 청소년의 자살 시도 증가는 정체감 혼란의 증가와 병행하는 듯한데(정옥분, 윤종희, 도현심, 1999), 이것은 청소년기의 특징인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의 문제가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박수진, 1993). Pfeffer(1981)는 어린시절 안정되고 분화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시켜 부정적인 자기지각과 무력감을 일으키고 아동의 자살행동을 초래한다고 보았고, 이것을 확장시켜 Wodarski와 Harries(1987)는 청소년기의 자살행동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을 자아정체감의 형성에서 찾고자 했다. 홍의경(1999)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이 자살생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자기수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 번째, Block과 Block(1980)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을 외·내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유연한 적응능력으로 보았다. Garmezy(1991)와 Rutter(1987)는 자아탄력성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적 조건에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고, Brenda(1998)는 탄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더 나은 적응과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Fraser, Richman, 및 Glinsky(1999)는 자아탄력성을 위험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Walsh(1998)도 탄력성을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자 위기나 도전에 반응하여 이를 감당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며 성장하는 적극적 과정이라고 개념화했다. 유성경과 이소래(2001)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밝힌 이경진(2003)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자살 생각을 완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서는 자살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부모와 갈등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살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Grob, Klein, & Eisen, 1983; Lester, 1987), 부모에게서 지시적이고 공격적 관계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 자살행동에 개입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Friedrich, Reams, & Jacobs, 1982). 부모와의 대화부족, 불만족,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의 위험성을 많이 보이고(홍나미, 1998), 청소년 자살 시도자들은 가족의 의사소통의 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Michael, Richard, & Elizabeth, 1995; Taylor & Stansfield, 1984).

두 번째,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중간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Rudd, 1990), 이것은 높은 생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사회적 지지가 약한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자살 행동과 많은 관계가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살 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Morano, Cisler, & Lemerond, 1993). 또한 De Wilde, Kienhorst, Diekstra, 및 Wolter(1994)의 연구결과, 자살 시도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가 적었다. 위기과정에서 동료나 친구들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대처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태에서도 새로운 도움을 찾도록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김진숙 등, 1997)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살충동간의 관계를

밝힌 임수영(1996)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에서는 자살과 생활스트레스, 가정의 화목도, 학교생활만족도의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etha와 McWhirter(1997)의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 수준이 자살의도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시도전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Stelzer, Bergman, Kral, Inay, & Elliot, 1995). Paykel, Prusoff, 및 Uhlenhuth(1971)는 스트레스는 자살과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종용(1993)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야단과 질책,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과중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한 인물의 상실이나 그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질병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부모, 이성, 선생님과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임수영, 1996; 박광배, 신민섭, 1991).

두 번째, 청소년들은 가족 안에서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경우, 충동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홍나미, 1998).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역기능적이며 가족과의 갈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우선유, 1999), 이런 가족내 갈등이 청소년이 자살을 결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Allen, 1987; Sands & Dixon, 1986). 특히 가족 문제 중에서 어머니와 자녀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자살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Taylor et al., 1984), 청소년 자살시도자들은 가정내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의 문제해결 기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Michael et al., 1995; Taylor et al., 1984).

세 번째, 학교 내에서 또래집단이나 선생님과의 문제를 지니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비행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생각이나 행동까지 연결되기도 한다(김운삼, 1997; 우선유, 1999; 전영주, 이숙현, 2000). 또한 자살의 징후로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한국청소년 연구원, 1992), 부적절한 친구 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유선유, 1999).

심리적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에서는 자살과 우울, 정신건강상태, 삶의 의미의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살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우울이라는 연구보고와 더불어 자살충동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 중의 하나가 우울 증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Kandel, Ravens, & Davies, 1991; Peter et al., 1994). 또한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임상적 특성이 우울증 환자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배성구(1998)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자살생각과 직접적인 상관을 보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자살이 모든 연령층에서 정신장애와 관련이 깊고(Black & Winokur, 1990) 특히 정신장

애를 갖는 청소년에게서 자살이 흔하다(한국 청소년 연구원, 1992). 윤성림(1990)의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정신건강 측면에서 자살생각 경험집단이 자살생각 비경험집단에 비해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특히 강박증, 불안신경증, 적대감, 정신증 등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해주었다. 또한 정신건강문제가 자살시도의 중요한 동기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석재호, 김경식, 기백석, 박유문, 1982; 안일남, 민병근, 1981).

세 번째, 조현진(1990)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결여된 사람은 실존적 좌절에 직면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며 그 결과로 자살충동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Sudak, Ford, 및 Rushford(1984)는 청소년기 자살의 촉발요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의미의 상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삶의 의미나 목적의 상실이 자살충동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고 주장하였고, Bonner와 Rich(1990)는 자살충동자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인지적 몰락

인지적 몰락에서는 자살과 인지적 몰락, 무망감의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Baumeister(1990)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즉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화하였다. 인지적 몰락이란 정신기능의 협소화로 일상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 무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신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수단으로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신민섭, 1993). 조숙희(1999)의 연구에서 인지적 몰락은 우울 다음으로 자살 충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소영(199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인지적 몰락과 자살욕구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인지적 몰락의 하위요인 중에서 수동적 삶의 자세가 자살욕구 예측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개인적 실패에 대한 지각,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과 불행을 자신이나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인 무망감은 자살행동에 가장 빈번히 연관되는 증상이다. 무망감은 우울과 자살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매개변인의 하나이며(Petrie & Chamberlam, 1983)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자살의 가장 좋은 단일예측자라고 할 수 있다(Beck, Steer, Kovacs, & Garrison, 1985).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무망감이 증가한다고 한다(Kazdin, French, Unis, Esveldt-Dawson, & Sherick, 1983). 또한 청소년들은 열등감과 장래에 대한 무망감을 느낄 때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애 등, 1993).

문제해결방식

문제해결방식에서는 자살과 문제해결기술, 충동성의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빈약한 문제해결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을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Mcleavey, Daly, Murray, O'Riordan, & Taylor, 1987; Patsiokas, Clum, & Luscomb, 1979). Dixon, Heppner, 및 Anderson(1991)은 비효율적인 문제해

결기술이 자살충동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했다. 문제해결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생활스트레스가 높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무망감을 더 많이 느끼고 따라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Clum과 Febbraro(1994)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자살의도수준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하상훈(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남녀 모두에게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갈등을 갖는 접근회피형 문제해결방식이 자살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청소년 자살은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정철순, 임숙빈, 고효진, 2001), 그 원인에 있어서도 자살하는 친구를 따라 자살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것이 많으며(김시업, 한중경, 1999), 청소년 자살 시도의 대부분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Brent, 1987).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대다수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자살 시도가 충동적인 문제해결 방식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길홍, 1989; Laster, 1981). 이것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단 하나 남겨진 선택으로 계획된 자살 시도를 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송동호 등(1996)의 연구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충동성이 더 높았고, Glaser(1981)의 조사에 따르면 충동성은 자살의 중요한 결정 요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 설명한 자살과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들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고위험집단의 청소년들은 자아취약성, 사회적 지지, 생활스트레스, 심리적 부적응, 인지적 몰락, 문제해결방식 등의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15개의 심리적 특성들이 자살생각에 대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강릉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소년 6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거나 무성의한 설문지 77부를 제외하고 523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성별분포는 남자 275명(52.6%), 여자 248명(47.4%)이었으며, 연령분포는 13세부터 18세의 범위로 평균은 16.5세였다. 학력은 중학생이 167명(31.9%), 고등학생이 356명(68.1%)이었다.

도구

자아취약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Q-sort 중에서 감정조절에 관한 하위척도인 자아탄력성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고은정(1997)이 번안하였고 개발당시 Cronbach' α는 .61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Cronbach'α는 .89였다. 자기수용 척도는 Dignan(1965)이 만든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형태(1989)가 번안과 변형을 하였는데 홍의경(1999)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들 중 자기수용 9문항이 자살과 상관이 높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 9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α는 .81이었다.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는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정숙(1994)이 번안하였는데 개발당시 Cronbach'α는 .74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Abbey, Abramis와 Caplan(1985)이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전지아(1990)가 번안하고 유성은(1997)이 이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ronbach'α는 .76이었다.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척도는 박광배 등(1991)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13개의 항목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가정화목도 척도는 FAQ(Family Atmospher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정유미(1997)가 번안하였는데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α는 .81이었다.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는 우선유(1999)가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성실도 등 20문항을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Cronbach'α는 .83이었다.

심리적 부적응

우울척도는 CES-DC(The Center for Epidemi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CDS (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하여 전귀연(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선유(1999)의 연구에서 자살과 상관이 높게 나온 무력감과 무가치감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Cronbach'α가 .82, .81이었다. 삶의 의미 척도는 PIL-R(Purpose in Life Test)을 사용하였다. 조현진(1990)이 번안하였는데 이때 Cronbach'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SCL-90(Symptom Checklist-90)를 사용하였다.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번안하였는데 윤성림(1990)의 연구에서 강박증, 불안, 적대감, 정신증 척도가 자살과 높은 상관이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척도 3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Cronbach'α는 .82, .90, .84, .75였다.

인지적 몰락

인지적 몰락 척도는 신민섭(1993)이 제작한 자기도피척도(Scale for Escape from Self: SES)를 바탕으로 손수지(1994)가 만든 정상집단용 단축형을 사용하였는데, 양소영(1998)의 연구에서 수동적 삶의 자세가 자살과 상관이 높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 삶의 자세 12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α는 .85였다. 무망감 척도는 KHPL(Kazdin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번안하였는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 방식

문제해결기술 척도는 PSI(Problem Solving Inventory, Form B)를 사용하였다. 하상훈(2000)이 번안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접근회피형이 자살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는 접근회피형 16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α는 .66이었다. 충동성 척도는 Dickman(1990)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민섭 등(1991)이 번안한 것으로, 역기능적 충동성이 자살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역기능적 충동성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Cronbach'α는 .73이었다.

자살생각

자살생각 척도는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를 사용하였다. 신민섭 등(1990)이 변형시킨 것을 최태산(1997)이 요인분석을 통해 14문항 선정한 것으로 Cronbach'α는 .75였다.

분석방법

첫 번째로, 자살생각 고위험 집단과 준거 집단 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입증하기 위해, 자살생각 점수를 상(30%), 중(40%), 하(30%)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15개의 점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15개의 심리적 특성들이 자살 생각에 대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를 입증하기 위해, 심리적 변인 15개의 점수를 예언변인, 자살생각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해서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에는 SPSS WINDOWS 10.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자살생각 상·중·하 집단에 따른 심리적 특성별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살생각 고위험 집단과 준거 집단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생활스트레스, 우울, 정신건강상태, 수동적 삶의 자세, 무망감은 자살생각 상, 중, 하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고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역기능적 충동성도 자살생각 상, 중, 하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고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500) = 5.74$, $p<0.01$). 반면에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아탄력성,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가정의 화목도, 학교생활만족도, 삶의 의미는 자살생각 하, 중, 상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고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문제해결기술도 자살생각 하, 중, 상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고 세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498) = 3.58$, $p<0.05$). 따라서 자살생각 고위험 집단과 준거 집단 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이 검증되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15개의 심리적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대해 미친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개의 심리적 변인들 및 자살생각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15개의 심리적 변인들과 자살생각은 상호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 우울, 정신건강상태, 수동적 삶의 자세, 무망감, 역기능적 충동성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p<0.001$),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아탄력성,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가정의 화목도, 학교생활만족도, 삶의 의미, 문제해결기술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p<0.001$). 자기수용과 수동적 삶의 자세가 .47로 자살과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자살생각 점수 상 · 중 · 하 집단에 따른 심리적 변인들별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변 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사후검증[1),2)]
자아취약성	자아존중감	집단간	1631.65	2	815.83	20.99***	집단1>2>3
		집단내	19590.50	504	38.87		
		전 체	21222.15	506			
	자기수용	집단간	2124.63	2	1062.31	32.09***	집단1>2>3
		집단내	16585.66	501	33.11		
		전 체	18710.28	503			
	자아탄력성	집단간	1191.87	2	595.93	9.07***	집단1,2>3
		집단내	32981.47	502	65.70		
		전 체	34173.34	504			
사회적지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집단간	1772.88	2	886.44	14.11***	집단1,2>3
		집단내	31478.02	501	62.83		
		전 체	33250.90	503			
	사회적 지지	집단간	1014.10	2	507.05	14.30***	집단1,2>3
		집단내	17664.10	498	35.47		
		전 체	18678.20	500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집단간	2999.57	2	1499.79	31.81***	집단3>2,1
		집단내	23715.69	503	47.15		
		전 체	26715.26	505			
	가정의 화목도	집단간	472.88	2	236.44	19.04***	집단1>2>3
		집단내	6270.79	505	12.42		
		전 체	6743.68	507			
	학교생활만족도	집단간	3761.82	2	1880.91	18.62***	집단1,2>3
		집단내	50307.17	498	101.02		
		전 체	54068.99	500			
심리적부적응	우 울	집단간	12193.52	2	6096.76	49.30***	집단3>2>1
		집단내	61335.16	496	123.66		
		전 체	73528.68	498			
	정신건강상태	집단간	34581.80	2	17290.90	40.38***	집단3>2>1
		집단내	210689.25	492	428.23		
		전 체	245271.06	494			
	삶의 의미	집단간	6335.32	2	3167.66	29.28***	집단1>2>3
		집단내	53776.57	497	108.20		
		전 체	60111.89	499			

표 1. 계 속

	변 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사후검증[1),2)]
심리적 부적응	우 울	집단간	12193.52	2	6096.76	49.30***	집단3>2>1
		집단내	61335.16	496	123.66		
		전 체	73528.68	498			
	정신건강상태	집단간	34581.80	2	17290.90	40.38***	집단3>2>1
		집단내	210689.25	492	428.23		
		전 체	245271.06	494			
	삶의 의미	집단간	6335.32	2	3167.66	29.28***	집단1>2>3
		집단내	53776.57	497	108.20		
		전 체	60111.89	499			
인지적 몰락	수동적 삶의 자세	집단간	4310.54	2	2155.27	46.75***	집단3>2>1
		집단내	22913.37	497	46.10		
		전 체	27223.91	499			
	무 망 감	집단간	5070.35	2	2535.18	23.77***	집단3>2>1
		집단내	52574.13	493	106.64		
		전 체	57644.48	495			

* $p < .05$, ** $p < .01$, *** $p < .001$

1) '>' 표시는 이웃하는 군집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2) 집단1: 자살생각점수 하집단, 집단2: 자살생각점수 중집단, 집단3: 자살생각점수 상집단

회귀분석 결과, 다른 심리적 변인들에 비해 자살 생각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심리적 변인들로 수동적 삶의 자세, 자기수용, 정신건강상태, 문제해결기술, 자아탄력성, 가정의 화목도, 무망감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에 대한 7개의 변인들의 총 설명변량이 36.0%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자살생각에 대해 수동적 삶의 자세는 22.3%, 자기수용은 5.8%, 정신건강상태는 2.6%, 문제해결기술은 2.3%, 자아탄력성은 1.2%, 가정의 화목도는 1.1%, 무망감은 0.7%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특성들이 자살 생각에 대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가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다고 시사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 하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15개의 심리적 변인들 및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

		자아취약성			사회적 지지		생활스트레스			심리적부적응			인지적 몰락		문제해결 방식		자살 생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자아취약성	1	1.00															
	2	.86***	1.00														
	3	.67***	.65***	1.00													
사회적 지지	4	.28***	.30***	.19***	1.00												
	5	.40***	.44***	.52***	.31***	1.00											
생활스트레스	6	-.50***	-.56***	-.52***	-.39**	-.43**	1.00										
	7	.31***	.33***	.29***	.58***	.31***	-.40***	1.00									
	8	.40***	.47***	.41***	.39***	.39***	-.52***	.32***	1.00								
심리적 부적응	9	-.64***	-.67***	-.56***	-.25**	-.45**	.54***	-.31***	-.50***	1.00							
	10	-.52***	-.57***	-.50***	-.18**	-.45**	.60***	-.27***	-.44***	.67***	1.00						
	11	.69***	.68***	.62***	.30***	.40***	-.51***	.32***	.43***	-.71***	-.52***	1.00					
인지적 몰락	12	-.53***	-.58***	-.45***	-.31**	.35***	.44***	-.32***	-.37***	.56***	.54***	-.62***	1.00				
	13	-.62***	-.63***	-.52***	-.25**	-.37**	.40***	-.24***	-.36***	.57***	.41***	-.68***	.48***	1.00			
문제해결방식	14	.50***	.54***	.61***	.22***	.38***	-.41***	.20***	.32***	-.47***	-.43***	.50***	-.41***	-.41***	1.00		
	15	-.37***	-.40***	-.42***	-.13**	-.27**	.37***	-.13**	-.26***	.31***	.41***	-.32***	.31***	.22***	-.57***	1.00	
자살 생각	16	-.38***	-.47***	-.23***	-.23**	-.24**	.35***	-.30***	-.30***	.45***	.44***	-.39***	.47***	.38***	-.20***	.18**	1.00

** $p < .01$, *** $p < .001$

(15개 심리적 변인들)

1. 자아존중감 2. 자기수용 3. 자아탄력성 /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5. 사회적 지지
6. 생활스트레스 7. 가정의 화목도 8. 학교생활만족도 / 9. 우울 10. 정신건강상태 11. 삶의 의미
12. 수동적 삶의 자세 13. 무망감 / 14. 문제해결기술 15. 역기능적 충동성 / 16. 자살생각

일원변량분석과 상관분석결과, 심리적 변인 15개의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 변인들이 자살생각과 정적·부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심리적 변인들이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고위험집단의 청소년들은 자아취약성, 사회적 지지, 생활스트레스, 심리적 부적응, 인지적 몰락, 문제해결방식 등의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변인 15개의 점수를 기초로 일원변량분석과

표 3. 자살생각에 대한 심리적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심리사회적 변인	표준화된B값 (Beta)	t값	R^2
수동적 삶의 자세	.226	4.372***	.223
자기수용	-.297	-4.713***	.058
문제해결기술	.156	3.056**	.023
정신건강상태	.226	4.435***	.026
가정화목도	-.121	-2.882**	.011
자아탄력성	.178	3.084**	.012
무망감	.117	2.269*	.007
총 설명변량			.360

*$p < .05$, **$p < .01$, ***$p < .001$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울, 무망감, 정신건강상태, 수동적 삶의 자세, 생활스트레스, 역기능적 충동성이 자살생각 상, 중, 하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고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삶의 의미,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가정의 화목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학교생활만족도, 문제해결기술은 자살생각 하, 중, 상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고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보통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있으며 생활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아가 연약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수용을 잘하지 못하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며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학교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 두 가지의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한다기보다는 이경진(2003)연구에서 경로분석을 통해 15개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를 설명하였던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유연한 태도가 없는 자아가 취약한 청소년들은 평소에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그 문제를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정서적·인지적 동기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원변량분석결과, 역기능적 충동성에서 자살생각 하집단은 자살생각 상·중집단과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지만 자살생각 상집단과 중집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자살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은 역기능적 충동성이 낮지만 보통의 청소년과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역기능적 충동성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기술에서 자살생각 상집단과 하집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지만 상집단과 중집단,

중집단과 하집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보통의 청소년들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15개의 심리적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대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일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변인 15개의 점수를 독립변인, 자살생각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살 생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이 수동적 삶의 자세, 자기수용, 정신건강상태, 문제해결기술, 자아탄력성, 가정의 화목도, 무망감 순으로 나타났다. 수동적인 삶의 자세, 자기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자아가 탄력적이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 것,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순으로 자살 생각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15개의 심리적 변인들이 자살생각과 정적·부적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의미, 역기능적 충동성, 학교생활만족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생활 스트레스 등 8개의 심리적 특성들은 회귀분석결과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7개의 심리적 특성에 비해,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8개의 심리적 변인들은 청소년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완충작용의 역할을 하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변량에서 1,2위를 차지한 변인과 상관분석결과, 자살생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이 수동적 삶의 자세, 자기수용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와 자기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동적 삶의 자세는 36% 총 설명변량 중에서도 22.3%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심리적 특성보다 수동적 삶의 자세가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김혜숙, 박승민, 구혜영, 남상인, 1995)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대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이유식이 필요한 아기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미리 청소년, 학교, 부모, 상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과 그의 부모, 담임교사가 함께 상담을 받거나 예방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수동적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 시기에 삶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살고자 하는 포부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삶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삶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강화해주는 개인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시급하다. 상담자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그룹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생각해보고 공유할 수 있다면 삶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동적 삶의 자세 다음으로 자기수용이 청소년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활용하여, 상담자는 해당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다른 측면에 있는 강점과 장점, 개인적, 환경적 자원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스스로 단점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줌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기를 수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적 차원에서 성교육을 하는 것처럼 자살예방교육을 하여 자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게 또래 상담교육이나 상담교사 교육,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문제해결의 방법이나 낭만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과 자살에 대한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살을 실제로 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몇 개의 원인들로 국한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함께 사용하여 자살을 예언하는 요인들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관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523명 중 자살생각 점수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들을 자살 고위험 집단으로 보았는데 그 집단이 실제 자살 고위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 고위험 집단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선택과 더불어 자살의 고위험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은 집단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자기보고로 얻어진 결과이므로 피험자에 의해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이 피험자를 평가하게 하여 그들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은정 (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시업, 한중경 (1999). 청소년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서울: 예솔

김운삼 (1997). 청소년 자살동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 (1997). 청소년 위기 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김혜숙, 박승민, 구혜영, 남상인 (1995). 청소년상담모형개발연구 I.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문화체육부 (2003).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종용 (1993). 청소년 자

살행동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청소년 동반자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박수진 (1993). 인지적 몰락과 비행청소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배성구 (1998).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행동특성: 남 · 여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석재호, 김경식, 기백석, 박유문 (1982). 자살기도자들에 관한 임상적 특징. 신경정신의학, 21(1), 25-32.

손수지 (1994). 수동적 삶의 자세와 자살생각이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 청소년 자살기도자의 정신의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35(6), 1366-1373.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86-297.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안일남, 민병근 (1981). 신문에 개제된 청소년 자살 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1946-1989). 신경정신의학, 20(4), 439-449.

양소영 (1998). 청소년기의 수동적 삶의 자세 및 이상-현실 괴리와 자살욕구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우선유 (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유성경, 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윤성림 (1990). 자살생각 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이경진 (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이길홍 (1989).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7(2), 441-463.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 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227-290.

임수영 (1996).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전귀연 (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관련변인분석. 청소년학 연구, 7(1), 221-246.

전지아 (1990). 산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

원 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 공역 (1999). Muuss, Rolf E. Theories of Adolescence. 청년 발달의 이론. 서울: 양서원.

정유미 (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가정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정정숙 (1994).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정철순, 임숙빈, 고효진 (2001). 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지, 10(4), 521-532.

조숙희 (1999). 실직자의 우울, 절망감, 인지적 몰락이 자살충동 및 자기 파괴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조현진 (1990). 우울, 자기비하 및 삶의 의미가 자살관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최태산 (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역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하상훈 (2000).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 청소년 연구원 (1992).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 청소년 연구원.

홍나미 (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홍의경 (1999).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 (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11-129.

Allen, B. P. (1987). Youth suicide. *Adolescence, 22,* 271-289.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Vol. 97*(1). 90-113.

Beck, A. T., Steer, R. A., Kovacs, M., & Garrison, B. (1985). A 10-year prospective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e ide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5), 559-563.

Black, D. W. & Winokur, G. (1990). *Suicide and Psychiatric Dignosis*, in S. J. Blumenthal & D. J. Kupfer(eds.), Suicide over the life cycle: Risk factors, assessment, and threatment of suicidal patients, Washington, DC: Psychometric Press, 135-153.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Bonner, R. L., & Rich, A. R. (1990). Psychosocial vulnerability, life stress, and suicide in a jail population: A cross-validation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3), 213-224.

Brenda, M. (1998). Personal resilience, cognitive appraisals, and coping: An intergrative model of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35-752.

Brent, D. A. (1987). Correlates of medical lethality of suicide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6,* 87-89.

Clum, G. A. & Febbraro, G. A. R. (1994).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ppraisal/

skills: Prediction of suicide severity with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 Assessment, 16,* 69-83.

De Wilde, E. J., Kienhorst, C. W. M., Diekstra. R. F. W., & Wolters, W. H. G. (1994).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ly distressed adolescents at high risk for attempting suicide. *Adolescence, 29*(113), 49-60.

Dickman, S. J. (1990). Fuctional and dysfu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95-102.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Dixon, W. A., Heppner, P. P., & Anderson, W. P.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51-56.

Fraser, W. M., Richman, J. M., & G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131-140.

Friedrich, W. R., Reams, R., & Jacobs, J. (198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02-407.

Garm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Glaser, K. (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68-382.

Grob, M., Klein, A., & Eisen, S. (1983). The role of the high school professional in identifying and managing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163-173.

Kandel, D. B, Ravens, V. H.,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89-308.

Kazdin, A. E., French, N. H., Unis, A. S., Esveldt-Dawson, K., & Sherick, R. B. (198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inpatient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04-510.

Laster, J. F. (1981).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7

Lester, D. (1987). A subculture theory of teenage suicide. *Adolescence, 22,* 317-320.

Mcleavey, B. C., Daly, R. J., Murray, C. M., O'Riordan, J., & Taylor, M. (1987).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deficits in self-poisoning 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33-49.

Metha, A., & McWhirter, E. H. (1997). Suicide ideation,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gifted adolesc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0,* 284-304.

Michael, K., Richard, H., & Elizabeth, D. (1995). Brief home-based intervention with young suicide attempt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8,* 557-568.

Morano, C., Cisler, R. A., & Lemerond, J. (1993).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 Loss, insufficient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Adolescence, 28*(112), 851-865.

O'Malley, P. M., & Bachman, J. F.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Patsiokas, A, Clum, G., & Luscomb, R. (1979). Empirically based comprehensive treatment for parasuicid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37-945.

Paykel, E. S., Prusoff, B. A., & Uhlenhuth, E. H. (1971). Scaling of events. *Archives General of Psychiatry, 25,* 340-347.

Peter, M. L., Paul, R., & John, R. S.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297-305.

Petrie, K. & Chamberlam. K. (1983).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85-487.

Pfeffer, C. R. (1981). The family system of suicida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3). 330-341.

Pfeffer, C. R., Conte, H. R., & Plutchik, R. (1979). Suicidal behavior in latency 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 679-692.

Rosenkrantz, A. L. (1978). A note on adolescent suicide: Incidence, dynamics and some suggestion for treatment. *Adolescence, 13,* 209-213.

Rudd, M. D. (1990). An inter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6-30.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ics, 57,* 316-331.

Sands, R. G., & Dixon, S. L. (1986). Adolescent crisis and suicidal behavio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 109-122.

Schneidman, E. S., Farberow. N. L., & Litman, R. E. (1976). *The Psychology of Suicide,* New York, Jason Aronson.

Sudak, H. S., Ford, A. B., Rushford, N. B. (1984). Adolescent suicide: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 350-363.

Taylor, E. A., & Stansfield, S. A. (1984). Children who poison themsel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5,* 127-135.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nay A. M., & Ellio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41-252.

Wodarski, J. S., & Harries, P. (1987). Adolescent suicide: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32*(6). 477-485.

Young, G., Rathge, R., Mullis, R., & Mullis, A. (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원 고 접 수 일 : 2004. 2.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4. 8. 10
게 재 결 정 일 : 2004. 11. 11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4. Vol. 16, No. 4, 667-68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Risk Group in Adolescent Suicide

Kyung-Jin Lee Seong-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uicide, based on the psychological variables reportedly related with former researches. For this purpose, 523 adolescent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concerning depression, hopelessness, meaning of life, dysfuctional impulsivity, passive attitude in life, symptom checklist, self-esteem, self-acceptance, ego-resilience, problem solving, parent-to-child communication, family atmosphere, degree of school life satisfactio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uicide ideation. First, the target group was divided into 3 subgroups, according to the suicide ideation scale, and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 were executed, based on the points of 15 psychological variables. As a result, the difference of 15 psychological variables among the groups was of significanc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executed, the points of 15 psychological variables being the predicted variables, and the points of suicide ideation being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the psychological variables effective turned out to be self-acceptance, passive attitude in life, mental healthiness, ego-resilience, problem solving, family atmosphere, and hopelessness. Lastly, the discussion follows about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and the latter researches.

Key Words : adolescent suicide, high risk grou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variables